

■ 민주, 10·3 전대 당권 레이스 개막

# 丁·鄭·孫·秋 출마... 대선 전초전 방불

9일 컷오프... 10일까지 후보등록 후 선거운동

11~27일 시도당 개편대회... 합종연횡 물밑접촉

다음달 3일 개최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의 당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손학규 고문과 정세균 전 대표, 추미애 의원이 7일 공식 출마 선언에 나섰다. 정동영 의원은 8일 출마표를 던질 예정이다.

특히, 각 후보 진영에서는 컷 오프 통과에 이은 본선에서의 지도부 진입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총동원, 합종 연횡을 모색하고 있다.

손학규 고문은 이날 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들만의 나라가 아닌,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김대중 정신, 노무현 가치를 되살려 '잃어버린 600만표'를 반드시 되찾아오겠다"고 밝혔다.

잃어버린 600만표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후보가 얻었던 1200만여 표와 2007년 대선에서 패배한 정동영 후보가 받았던 600만여 표의 차이를 의미한다.

정세균 전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개혁 진영이 승리하는 큰 판을 만들겠다"며 "보수 후보를 압도하는 민주 진영의 단일 후보를 만들어 내겠다"고 선언했다.

추미애 의원도 이날 "당원과 함께 뛰는 동행 정치를 통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정배 의원, 장성민 전 의원 등도 출마표를 던질 예정이며 486 진영에서는 백원우, 최재성 의원과 이인영 전 의원이 오는 10일까지 후보단일화에 나설 예정이어서 당권 판도에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당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정동영, 손학규, 정세균 등 '빅3'를 제외한 남은 세 장의 최고위원 티켓을 놓고 각 후보들의 합종연횡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우선 정동영 의원은 비주류 및 세신연대 후보들과 연대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정세균 전 대표는 친노·486 주자들과 연대 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류도 비주류도 아닌 손 고문은 각 후보 진영의 러브 콜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최종 연대 파트너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주선, 전정배, 김효석 의원 등과의 연대설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9일 열리는 컷 오프를 앞두고

각 후보 진영에서는 복잡한 연대 방정식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인 3표라는 점에서 연대 파트너를 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동영, 손학규, 정세균 등 '빅 3' 진영에서는 자칫 컷 오프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본선에 약영향이 예상된다. 이 점에서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중소 후보들은 연대 전략에 따라 본선 진출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감안해 최상의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컷 오프를 통과한 9명을 대상으로 10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전당대회 직전까지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또 11일 광주를 시작으로, 27일 경기도까지 전국 시·도당 개편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방송사 토론회도 10차례 가람 열어 흥행몰이에 나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김효석 민주 지도부 진입할까

지역 대의원 지지 가파른 상승세  
합리적 리더십·미래주자 '긍정'



석 바람'의 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 삶에 방점을 둔 생활정치를 내세운 김 의원의 탈 이념적 정치 성향에 대한

10·3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서고 있는 김효석 민주당 의원(담양·곡성·구례)의 선전 여부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의원이 지도부에 임성하게 된다면 지역 민심을 반영하는 창구가 되는 것은 물론 지역 정치권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다소 취약했던 인지도도를 극복하고 지지세를 확대하고 있어 지도부 진입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최근 광주·전남지역 대의원의 지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수도권과 영남지역 대의원들도 김 의원 카드에 호감을 보이고 있어 당권 구도를 뒤흔들 '다크 호스'로 꼽힌다.

이 같은 배경에는 김 의원의 은화하면 시도 합리적인 리더십과 민주당의 '미래주자'라는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당권 주자 가운데 유일한 경제전문가인 데다 그동안 보여준 민주개혁 세력 통합에 대한 일관된 행보도 '김효

민주당 대의원의 공감대도 점차 공고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9일 진행되는 후보 압축과 본선을 앞두고 각 후보 진영에서는 김 의원과 연대를 타진하는 러브 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도부 진입을 위한 정치공학적 연대보다는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가치 지향적 연대를 모색한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제 전문가인 김 의원의 합리적인 리더십은 그동안 당내외에서 호평을 받아 왔으며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다른 당권 주자군에 비해 정치적 참신성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0·3 전당대회를 앞두고 컷오프(예비 경선)에 참여하기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7일 실시되면서 민주당의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했다. 7일 국회 정론관과 여의도당사에서 각각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정세균(왼쪽) 전 대표와 손학규 상임고문.



박주선 의원은 이날 MBC '손학규의 시사선진'에 나와 이 전 중수부장이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다 보니 살아있는 권력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신한금융사태 정치쟁점화 되나

박지원 "경영권 분쟁 배후 영포라인" 지목

영호남 갈등 비화 조짐도

신한금융지주 경영권 분쟁사태와 관련,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가 배후로 영포라인을 지목하며 현정권 개입설을 제기하면서 정치 쟁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사태를 야기한 라웅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경북 상주 출신인 반면 신상훈 신한금융사장은 전북 군산 출신이어서 영·호남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 대표는 7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서 "영호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라 회장의 장기 연임을 위한 현 정권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일각의 의혹과 관련해 "현 정권에 와서 KB금융회장은 아니라 제일교포의 피떡 어린 투자로 인한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영포(영일·포항)라인이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권 개입설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실 역대 군사정권에서도 금융계만은 손을 못 댔으나 현 정권에서는 상황이 다르다"며 "이번 사태는 KB금융에

이러 또 하나의 한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을 자기를(영포라인) 손아귀에 넣기 위한 일종의 권력투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호남 출신인 신상훈 신한금융사장이 라웅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민주당에 제보해 라 회장을 제거하려 했다"는 주장도 "영포라인"이라고 단언한 뒤 "(민주당이)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지시했을 때 신 사장이 가까운 지인을 통해 연락을 했다"면서 "그때 라 회장은 오늘의 신한을 이뤄낸 공로로 훌륭한 분이라며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일종의 정략을 3번이나 했던 분"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나아가 "어제 제일교포 주주분이 저희에게 전화해 걸어와 '우리의 피와 땀이 어린 돈을 (신한에) 투자했는데 지금 그 주식을 자식들에게 상속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다라 회장이 한 것'이라는 제보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제 다라 회장이 한 것"이라는 제보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제 다라 회장이 한 것"이라는 제보도 있었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486, 10일까지 전대 후보 단일화

최재성·백원우·이인영 합의

민주당의 10월3일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486(4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인사들이 후보 등록일인 오는 10일까지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하면서 후보자 간 합종연횡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성·백원우 의원과 이인영 전 의원 등 전대 출마 의사를 밝힌 486 인사 3명은 7일 오전 486 인사 10여명과 조찬 회동을 갖고 후보 단일화 방침에 합의했다고 우상호 전 의원이 전했다.

단일화 방식으로는 오는 9일 1차 후보군 압

축을 위해 실시되는 컷오프(예비경선)의 득표 순위 등을 감안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번 전대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통합 선출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가 도입돼 486그룹의 진입장벽이 높아진 데 따른 돌파구 마련 차원으로 해석된다.

우 전 의원은 "민주당의 변화와 우리 세대의 가치를 내걸고 당원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호소하기 위해 단일후보를 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단일후보가 확정되면 486그룹 차원에서 공동 캠프를 꾸려 해당 인사의 지도부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 민주, '盧 차명계좌' 발언 이인규 맹공

박지원 "국감 증인 신청 할 것"

민주당은 지난날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최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와 관련 발언과 관련, 연일 이 전 부장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이 전 중수부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명계좌의 존재는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는 7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법사위에서 국정감사 때 증인 신청을 하려고 하니 당당하게

나와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란 중수부장답게 거짓말을 잘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직자가 공직수행시 알게 된 사실을 말할 수 없게 돼 있는 실정법을 염연히 위반하고 있는데 왜 검찰에서 인지수사를 하지 않는지 굉장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MBC '손학규의 시사선진'에 나와 이 전 중수부장이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다 보니 살아있는 권력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강빌딩 매각공고**  
(위치 : 광천파출소 사거리 대로변)

- 물건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4, 64-6  
- 면적 : 대지 : 734m<sup>2</sup>(225평)  
- 건물 : 4,764m<sup>2</sup>(1,412평)

두암신용협동조합  
총무과 TEL. 062-263-0136

www.ctcl.co.kr  
까띠끌레 피부개선 기능성화장품  
**지역대리점 및 사원모집**

- 소자본투자
- 안정된 수익률
- 미용관련종사자 우대

**열정 가득한 분을 모십니다!!**  
지역대리점은 (목포, 여수, 순천, 익산, 전주, 남주, 등입니다.)

**까띠끌레는!**

- \* 전국 1,800여개 피부과에 입점중인 병원 전문 화장품 브랜드
-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중금속 시험을 통과한 화장품 브랜드
- \* 국내 최초 더마프로 임상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브랜드
- \* 2010년 프테라포테부산 공식 지정 화장품으로 선정된 명품브랜드 화장품
- \* 태국 Watsons 매장 입점중인 화장품 브랜드
- \* 세계 다수 국가로 수출중인 화장품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카자흐스탄, 베트남,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두바이 등 다수)
- \* 국내 유명 헤어샵에 입점중인 화장품

**방문 및 관리사원 모집** : 자유로운 출퇴근, 안정된 고수익률, 투잡가능

지사방문시 행운 가득!

**Caticlair**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1-1 201호  
까띠끌레 호남지사 ☎ 0621362-1117 / 010-3608-6394

**동심 발크림 출시!!**  
약국판매용

**튼살!! 굳은살!! 각질제거!!**  
무릎, 팔꿈치, 복숭아뼈,  
**발뒤꿈치 케어크림**  
거칠고 자주 트는 발을 매끈하게

소매자가\*10,000  
점포인신선, 취급하실 분 무자본(판매케이스와 발크림드림니다)

유사업종가게하신분이나 사람이 많이 오가는 업종하신분 환영!  
절친리 판매중!! 지금은 필요없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신비의 약초**  
레벤! 한방에 3일  
10일다이어트 3kg-5kg  
아랫배 췌 췌 굶지않습니다!  
효과있을시 100% 환불  
1개월분 5만원  
(택배무료배송)  
영업달로모집 1시간 투자  
월200만가능, 투잡,겸업가능

**취급점, 대리점 및 창업자 모집중!**  
내이바키매 또는 다듬카매에서 '유한바이오텍' 검색하십시오!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 062) 954-5046  
株式会社 010-4624-5046  
유한바이오텍 010-8364-1496

"출발2010, 제2의 청학인" 학교법인 우암학원 장학(주)년  
**전남과학대학 창업보육센터 POST-BI 입주기업 모집**

전남과학대학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업 초기기업 및 우수한 아이템 보유 예비 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업 - 0개 기업
2. 기업 입주 공간 - 28.05m<sup>2</sup>(8.5평), 56.1m<sup>2</sup>(17평), 165m<sup>2</sup>(50평)
3. 신청자격
  - 신기술 보유 예비창업자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산·학 협력 가능한 사업자 및 예비사업자
  - 광주광역시 중점 육성사업인 광(光)산업 및 자동차 기계산업 분야 우대
4. 입주부담금
  - 입주관리비 : 13,500원/3.3m<sup>2</sup>, POST-BI 일부 11,000원/3.3m<sup>2</sup>
  - 입주보증금 : BI ≒ 200,000원/3.3m<sup>2</sup>, POST-BI ≒ 100,000원/3.3m<sup>2</sup>
  - 전기료, 전화비 별도
  - 연차별 징수제 적용
5. 서류 접수 및 문의처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970-14 전남과학대학 POST-BI
  - 연락처 : 062)971-5020, 971-8797

**전남과학대학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수시 모집	정시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시 1차 접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 2010. 9. 8. ~ 10. 6.</li> <li>· 창 구 : 2010. 9. 13. ~ 10. 7.</li> </ul> </li> <li>◆ 수시 2차 접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 2010. 10. 18. ~ 11. 30.</li> <li>· 창 구 : 2010. 11. 15. ~ 12. 01</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시 1차 접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 2010. 12. 20. ~ 2011. 1. 5</li> <li>· 창 구 : 2010. 12. 20. ~ 2011. 1. 6</li> </ul> </li> <li>◆ 정시 2차 접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 2011. 1. 17. ~ 2011. 2. 16</li> <li>· 창 구 : 2011. 1. 17. ~ 2011. 2. 17</li> </ul> </li> </ul>

다민학원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간호과, 유아교육과, 인경광학과, 특수장비과, 특수통신과, 화학기사과, 해군통신사(이)과, 관광통역과, 관광통역과, 호텔관광영어과, 호텔조리관리과, 태권도체육과, 무도경호과, 합기도과-해동검도과, 방송모델과, 뷰티미용과, 기독교영성교회과, 생체체육과, 골프프로그래밍과, e-스포츠과, 대체의학, 게임제작과, 자동차과, 지리정보도움과, 건축과, 사회복직과, 음악과, 회계연계과, 언어재활과, 치지정검과

www.chunnam-c.ac.kr \* TEL: 061-360-5000 FAX: 061-363-5020 \* 전남 곡성군 옥리면 옥리리 285